

[칭다오 저널] 한국인 몰려 집값 2년새 2배 폭등

(조선일보 2004.02.10)

[칭다오 저널] 한국인 몰려

집값 2년새 2배 폭등

강남 부동산 업자까지 진출 '사재기'

"사업환경 좋아" 한국기업 5300여개

칭다오=여시동특과원 sdyeo@chosun.com

입력 : 2004.02.09 16:58 18' / 수정 : 2004.02.10 09:41 30'

“한국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는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시민들이 터뜨리는 불만이다. 최근 한국 기업과 교민이 급증함에 따라 은도경원(銀都景園) 등 시내 아파트는 m²당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가까운 1만위안(약 150만원)으로 폭등했다. 한국인 거주 아파트 단지인 이화원은 빈집이 동이 났다.

작년 말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의 부동산들이 이곳으로 손을 뻗쳐 한국 투자자들은 앞서서 칭다오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또 한국 점쟁이가 등장하고 자장면 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한국화’되고 있다.

칭다오 류팅(流亭)공항에서 시내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좌우 수백 m 엔 ‘가마솥 곰탕’, ‘찜질 황토방’, ‘김삿갓’, ‘KOREA 에어로빅’ 등 한국 상호들이 즐비하다. 이어 하이얼루(海爾路)를 달리다 보면 또다시 ‘토속촌’, ‘은하 불야성’, ‘태양한의원’ 등 한국 업소 간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칭다오의 교민수는 5 만을 넘어 6 만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5 만의 베이징(北京)을 넘어서 중국 내 한국 교민 최다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이다.

칭다오엔 지난 한 해만 1320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 전체 한국 기업이 5300 여개에 이르렀다. 한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는데 비해 칭다오의 사업환경 및 생활 여건이 한국인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로 1 시간 10 분. 공장 부지 임대료와 인건비가 각각 한국의 10 분의 1, 7 분의 1 에 불과하다.

칭다오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쑨형친(孫恒勤·39) 부국장은 “최근 2 년 새 한국 업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진출 기업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진출한 대형 한국 기업은 3 억 8000 만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한 LG 아로마틱스를 비롯해 LG 휴대폰, 효성 스틸코드, 신도리코 등이다. 앞서 2002 년 포스코와 고려제강이 진출했었다.

지난해 칭다오시의 외자유치 총액 중 한국 투자액은 40%나 됐다. 칭다오시는 이를 의식한 듯 올 7 월 처음으로 ‘한국 주간’ 행사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 크기 면적에 인구 720 만명의 칭다오는 중국 5 대 무역항이자 최고의 미항(美港)으로 꼽힌다. 19 세기 말~20 세기 초 독일·일본 식민지 흔적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그 유명한 칭다오 맥주, 가전사 하이얼, 컴퓨터업체 하이신(海信·Hisense)이 도시의 상징이지만 여기에 ‘한국인村’이 추가될 참이다.

지난해에는 북한 음식점이 한꺼번에 5 개나 생겨났다. 평양관의 북한

종업원 김현희(21)씨는 “손님의 90%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업들이 몰려오면 한국에 남아 있을 공장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청다오 무역관의 손수윤(孫壽潤·41) 대표는 “사전에 시장성이나 판로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고 충고했다.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402/200402090223.html>